



정교회주보

제2555호

2025년 12월 14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루가 제11주일

성 필레몬 순교자

(제2조 • 조과 복음 5)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2조 부활 찬양송 81
 - 순교자 찬양송 84
 - 성당 찬양송
 - 성탄 대림절 시기송 208
 - 사도경 : 골로사이 3,4~11 · (봉)362
 - 복음경 : 루가 14,16~24 } 130
 - 마태오 22,14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사진 설명

매일 드리는 예식

정교회는 이천 년 역사에서 비롯된 매우 풍성한 전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사도 시대 이래로, 전례에는 성가와 기도문 그리고 특별한 예식들이 계속 추가되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주요 전례 주기가 형성되었는데, '매일', '주간' 그리고 '연간 전례 주기'로 구분한다.

이번 호에서는 '매일 드리는 예식'에 대해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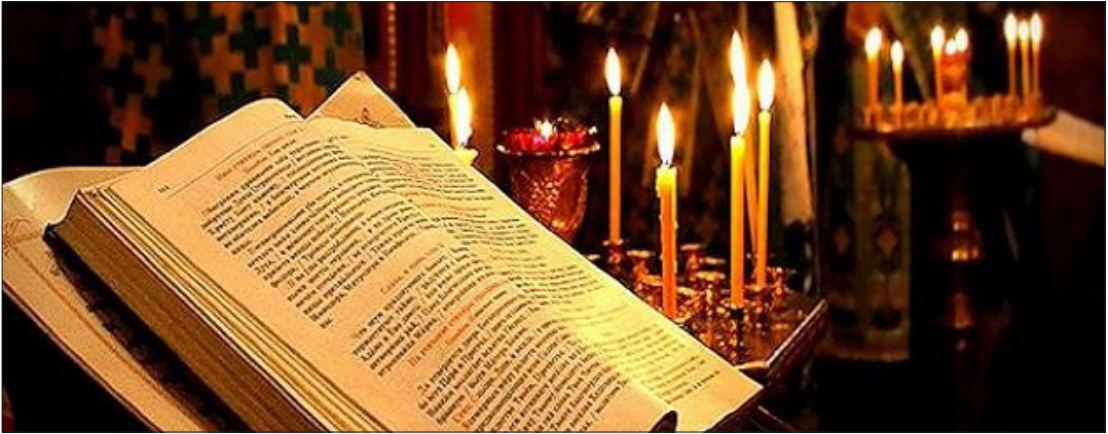
정교회에서의 하루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창조, 타락, 수난, 부활, 재림)을 끊임없이 재현하는 영적인 여정이며, 매 순간을 하느님과 연결하기 위해 구성된 거룩한 예식의 흐름이다. 하루는 해 질 녘(일몰)에 시작된다. 이는 "이렇게 첫날이 밤, 낮 하루가 지났다"(창세기 1,5)라는 성서 말씀에 기초한다. 저녁에 '만과'로 시작해서 다음 날

후의 '제9시과'로 끝이 나는데, 총 여덟 가지 예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만과, 석후과, 심야과, 조과, 제1시과, 제3시과, 제6시과, 제9시과가 그것이다.

이처럼 정교회의 매일 예식은 우리가 숨 쉬는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를 덧입혀, 나의 하루가 곧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이끄는 것이다.

(2면에서 계속)



1. 만과

하루를 시작하는 예식으로서 해 질 무렵에 제일 먼저 드린다. 주님의 놀라우신 만물의 창조를 경탄하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낙원에서 추방을 상기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호소하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화사한 빛으로 암흑이 걷어졌음을 찬양한다.

2. 석후과

'저녁식사 후'라는 뜻처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 밤에 나의 육신과 영혼, 곧 나의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의 품속에 맡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3. 심야과

그리스도 신랑께서 한밤중에 오신다는 성서 말씀(마태오 25,1-13)에 근거하여 우리 영혼이 한밤중에도 깨어있어야 함을 독려하며,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4. 조과

동트기 전에 드린다. 하느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항상 새롭게 하루를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창조주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루가 1,78-79)과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베드로 전 3,9)한다.

5. 제1 시과 (오전 6시)

해가 뜰 때 드린다. 그리스도께서 붙잡히신 후 아침에 빌라도에게 넘겨지신 것을 기억하게 한다. 하루 동안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느님의 인도를 구한다.

6. 제3 시과 (오전 9시)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리스도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채찍질 당하신 고통을 기억한다. 또한 성령 강림을 기억한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성령께서는 세 번째 시간, 즉 오전 9시경에 임하셨기에, 하느님께 감사드린다.(사도행전 2,15)

7. 제6 시과 (정오 12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상기시켜 준다. 그때는 여섯 번째 시간, 즉 정오 12시경에 이루어졌다. 우리는 인간의 죄로 인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참회하며, 동시에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짐을 기억한다.

8. 제9 시과 (오후 3시)

그리스도께서는 아홉 번째 시간, 즉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셨다.(루가 23,44-46)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의 욕망을 죽이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도한다.

고백성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3)

안토니 블룸 대주교(1914-2003, 영국의 수로즈)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우리의 양심에 대한 마지막 심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그분의 심판은 복음서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취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단순한 마음으로 복음서의 한 장 한 장을 읽는다면, 또한 진정성과 단순함으로 복음서를 대한다면, 그때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이 세 가지 부류로 나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서의 어떤 구절들은 우리의 이성과 사물을 이해하는 능력이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의 의지나 마음으로도 아직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하느님의 종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의지로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서 안에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았던가?”라고 말했던 두 여행자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 수는 매우 적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고백들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의 정신, 하나의 마음, 하나의 의지, 하나의 생각으로 연결되는 어떤 지점이 있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느 면에서 이미 그분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이미 그분의 것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어떤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서의 이런 말씀들을 값진 보물처럼 마음속에 기억하고 간직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런 계명들을 아주 세심하게 지켜 나간다면, 그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죽은 것과 어두운 것과 죄가 되는 것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없애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나라로 가는 길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는 12월 17일(수) 축일을 맞이하는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의 박인근 요한 신부님과 신자 여러분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과 평화와 열정이 넘치는 성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 12월 17일(수)
성 디오니시오스 예기나 주교
- * 12월 20일(토)
성 이그나티오스
안티오키아 주교순교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각 성당 예배는 문의 바랍니다.)



■ 서울 성당 축일을 보내며

올해도 성 니콜라스 미라의 대주교 축일을 잘 준비하여 아름답고 경건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11월 30일(주일)에는 성인의 성해와 성화를 성당 중앙에 모신 후, 많은 신자들의 참여로 성당 안팎을 함께 정리하고 성탄 장식을 하였습니다. 12월 5일 저녁에는 대만과와 아르토클라시아, 그리고 행렬이 거행되었으며, 6일 아침에는 조과와 성찬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준비와 행사에 도움을 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성인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늘 중보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성탄 대축일 예배 안내

12월 24일(수)

오전 9:00	성탄절 대시과 (1시과, 3시과, 6시과)
오후 5:00	성탄절 대시과 (9시과) 성탄 대축일 대만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12월 25일(목)

오전 9:00	성탄 대축일 조과
오전 10:00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오후 12:00	성탄절 행사, 사랑의 오찬



알림

■ 대교구 겨울 수련회 안내

대교구 겨울 수련회가 열립니다. 아름답고 이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신청은 1월 10일까지 각 성당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초, 중, 고등학생 : 1/19(월)-23(금) (참가비 12만원)

신데즈모스(예비신자 포함) : 1/23(금)-25(일) (참가비 6만원)

장소 :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인천 성당 사목 방문

지난 주일(7일) 암브로시오스 성인 축일에,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인천 성 바울로 성당을 방문하였습니다. 대주교께서는 나창규 다니엘 대신부와 함께 조과와 성찬예배를 집전하시고 설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배 후에는 나창일 니콜라스 교우의 추도식이 거행되었으며, 이어 신자들과 함께 사랑의 오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다니엘 대신부의 축일을 함께 축하하며, 수십 년간 이어온 사목 여정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